

'16. 제1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16. 2. 29(월) 16:00
- 장 소** : 3층 기획상황실
- 참석현황** : 11명
- 안 건** : 공익단체활동 지원사업 외 8건
- 사 회** : 이정심 예산팀장

회 의 록	
사회자	회의참석 현황보고, 13명 위원 중 11명 참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 제1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시작.
위원장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오늘 심의에서도 공정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 드림.
위원장	첫번째 안건으로 공익단체활동 지원사업을 상정함.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안건에 대한 의견개진 바람.
안남홍	새마을운동 동작구지회의 보조금 지원액이 2015년에 비해 줄어들었음. 전년에 비해 사업규모가 축소된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새마을운동의 경우 개별법령에 따른 법정운영비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음. 법정단체의 운영비는 공모를 거치지 않고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게 됨.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와 한국자유총연맹도 마찬가지임.
위원장	다른의견 없습니까?
위원일동	의견없음
위원장	안건에 대한 의결은 9개 안건의 심의를 모두 마친후 일괄로 진행하겠음. 다음안건으로 독서문화진흥단체 진흥사업을 상정함.
마을도서관팀장	제안설명
위원장	위원님들 해당안건에 대해 의견개진 바람.
강성민	공모사업에 1개 단체만 지원했는데 동작구에 지원가능한 단체들이 얼마나 있는 지?
팀장	현재 관내에 독서문화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는 1개임.
위원장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장애인 생활체육동아리 지원사업에 대해 심의하겠음.

생활체육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위원님들 해당안건에 대해 의견개진 바람.
위원일동	의견없음
위원장	다음으로 장애인단체 지원사업을 안건으로 상정함.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전년도에는 11개 단체를 지원했는데 올해 9개 단체만 지원을 하는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올해 10개 단체가 보조금을 신청하였으나 1개 단체는 2월에 설립한 신규단체로 전년도 공익실적이 없어 제외하였음.
강성민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하반기에 추가로 공모를 진행하여 지원할 예정임.
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 아동안전 및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사업을 안건으로 상정함.
보육여성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안건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 개진 바람.
위원일동	의견없음
위원장	다음안건으로 환경단체 지원사업을 상정함.
기후변화대응 팀장	제안설명
위원장	안건에 대한 의견개진 바람.
위원일동	의견없음
위원장	다음안건으로 교통봉사단체 지원사업을 상정함.
교통지도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안건에 대한 의견개진 바람.
위원일동	의견없음
위원장	다음안건으로 마을교육플-학교연계사업을 안건으로 상정함.
교육문화과장	제안설명
강성민	해당사업 개요를 보면 지원한도를 4백만원 내외로 정해놓고 있음. 그러나 일부학교에 5백만원 이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책정했는데 설명바람.
교육문화과장	이번 사업의 총사업비는 1억 8천만원으로 계획수립시 최대한 많은 학교 지원을 위해 한 학교당 4백만원 내외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준을 설정하였음.

	그러나 공모접수결과 34개 학교에서만 신청하였고, 신청학교 중에서도 4백만원 이하로 신청한 학교가 있어, 남은 사업비를 해당사업에 대한 열의와 적극성이 있는 학교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였음.
안남홍	학교별 지원실적을 보면 전년도와 비교해 사업비가 많이 삭감된 학교들이 있음.
교육문화과장	작년에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학교별 학사일정이 이미 확정된 2월 이후에 추진됨에 따라 많은 학교들이 참여하지 못하였고, 학사일정을 변경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신청한 일부 학교에 대해서만 지원하였음. 올해는 전년도의 시행착오를 줄이고자 1월부터 학교별 안내와 공모사업 신청을 받았으며, 많은 학교들이 참여하게 됨에 따라 학교별 사업비가 줄어든 점이 있음.
위원장	올해 남은 예산은 하반기에 추가로 추진할 예정인지?
교육문화과장	네
이영진	구 이외에 서울시라던가 다른 기관에서 각급 학교로 지원되는 것이 있는지?
교육문화과장	서울시와 교육청,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음.
김민성	학교에 따라서 같은 프로그램에 대해 시행 차수가 다른데 학생수 차이 때문인지? 예를들면 건강격투기 프로그램을 채택한 영본초등학교와 남성중학교의 경우 교육차수가 5회와 22회로 그 차이가 매우 큼. 격투기 같은 프로그램은 일정정도 수련기간이 보장되어야만 교육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임.
교육문화과장	중학교의 경우 학과과목 이외의 교외학습에 대해 많은 참여가 어렵고, 초등학생의 경우 예체능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임.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별 지원금액 범위안에서 많은 학생을 참여시키고자 함에 따라 교육차수가 적어질 수 밖에 없음.
위원장	여러학교에서 다양한 분야의 교육프로그램을 신청하였는데 소관부서에서 사전에 심의를 철저히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음. 집행에 있어서도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강성민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지원금액 한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바람. 지원한도를 4백만원으로 정해놓고 5백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함
위원장	지원한도는 4백만원 내외로 되어있는데 일부학교에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강성민 위원이 지적하셨음. 심의자료를 보면 이에 대해서 자체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친 것이지요?
교육문화과장	혁신교육 실무추진위원회와 콘텐츠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하였음. 그리고 동작초등학교의 경우 해당프로그램에 공연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사업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게 된 것임. 전체 사업비가 1억 8천인데 미참여학교가 10개정도 되며, 이들 학교에는 세차례 정도 안내하였으나 참여하지 않았음. 남은 예산을 참여에 열의가 있는 학교에 지원하고자 함.

위원장	강성민 위원님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강성민	네
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 안건인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을 상정함.
교육문화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위원님들 해당안건에 대해 의견개진 바람.
김민성	초중고 학교별로 지원금액 기준이 법령이나 조례에 정해져 있는지?
교육문화과장	법령, 조례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전년도에는 학교별 동일금액을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학교별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하고자 함.
김민성	초·중·고등학교에 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하고 있지만, 사실상 학부모 입장에서는 유치원 비용이 더욱 많이 들어가게 됨. 유치원에 대한 지원금액을 더 높이는 것은 어떤지?
교육문화과장	교육경비 보조금은 초·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유치원에 대한 지원금액을 늘리기 위해선 초·중·고에 대한 지원금액을 줄여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
김민성	유치원 비용에 대한 가계담이 큼. 무상교육인 초등학교보다 유치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임. 누리과정이나 무상보육과 같이 유치원에 대한 가구별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함. 뒤에 계신분(교육지원팀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람.
교육지원팀장	교육경비 보조금은 교육기관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구별 지급은 어려움.
김민성	학부모가 부담해야하는 유치원 비용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을 것임
교육지원팀장	현재 유치원에 교재, 교구비를 지원하고 있고,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음. 지원범위의 확대는 구 재정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김민성	요즘 출산율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는 어린이집, 유치원 비용부담의 문제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람.
교육문화과장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 그러나 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부담 경감은 국가적 지원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위원장	이건에 대해서는 법률적 문제 등 검토가 필요하므로 교육문화과장은 검토후 위원님께 알려주시기 바람.
노명옥	유치원은 동일금액을 지원하는지?
교육문화과장	유치원에 대해서는 소규모 금액이 차등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지난해 3백만원 지원에서 올해 5백만원 일괄지원으로 변경하였음. 내년에는 유치원에 대해서도 차등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겠음.

이영진	2013년부터 교육경비 총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교육문화과장	13년 40억, 14년 20억, 15년 11억, 15년 20억임
이영진	매년 규모가 큰폭으로 차이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교육문화과장	13년부터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복지비용 급증으로 구 재정여건이 어려워졌고, 법적 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 16년에는 재정여건이 다소 회복됨에 따라 교육경비 예산을 20억원 편성하였고, 향후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임.
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 심의를 마무리 하고, 오늘 상정된 9개 안건에 대해서 원안가결 함. 이상으로 2016년 제1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마칩.

■ 회의종료 : 17:00

■ 회의 참석인원

[심의위원] 정진태, 유제환, 오영수, 장기현, 안남홍, 조홍연, 강성민, 김민성, 이영진, 노명옥, 박노금(11명)
[배 석] 자치행정과장(정정숙), 마을도서관팀장(유진숙), 생활체육과장(홍관표), 교육문화과장(김미경), 사회복지과장(김은희), 보육여성과장(이용철), 기후변화대응팀장(신해정), 교통지도과장(박명자)